

20
17

두산연강예술상



20
17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초대회장 연강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입니다.
2010년 제정해 오늘 8번째 수상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두산아트센터 10주년인 해여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래된 두산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내일을 이끌어갈 젊고 재능 있는 창작자들에게
이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작업에 관심 갖기를 바라며,
각자의 예술세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두산의 의무이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박용현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
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미술 부문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
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신작 공연 제작 지원
아티스트 멘토링 제공
작품 워크숍, 세미나

미술부문

수상자 1명
상금 1천만 원
두산갤러리 서울/뉴욕 전시
(2018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2019년 하반기,
스튜디오/거주 공간/항공권 2회/생활비 제공)
아티스트 프로모션

2017 제8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부문 이연주

심사위원 노이정 (연극평론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김재엽 (연출가)



이연주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 대표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전문사 재학 중

수상

2013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대상, 연출상 <고도를 기다리며>

경력

- 2017 연극 <아무도 아닌> 각색/연출
연극 <웃음의 고등학교> 연출
연극 <유산균과 일진(日辰)> 연출
연극 <2017 이반검열> 구성/연출
연극 <대안가정생태보고서> 연출
연극 <전화벨이 울린다> 작/연출
- 2016 연극 <이반검열> 구성/연출
- 2015 연극 <쉬는 시간> 연출
연극 <삼풍백화점> 각색/연출
연극 <2015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 구성/연출
- 2014 연극 <스트립티즈> 연출
연극 <너는 나다> 작
- 2012 연극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 구성/연출
- 2011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연출



2011 「고도를 기다리며」



2015 「삼풍백화점」



2016 「이반검열」



2017 「전화벨이 울린다」

공연부문 심사평

작가로서, 연출가로서 한국사회의 모든 타자들, ‘이반’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로 소환하는 이연주의 언어는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갖지 못하거나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가 무대 위에서 타자로 품는 대상은 삼풍백화점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그리고 감정노동자들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이들을 통해 망각을 강요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폭력과 무감각들, 배제당한 타자들의 억눌린 고통을 전하며 관객들의 무감각을 두드려 반성적 성찰로 이끈다.

연출가로서 이연주의 미덕은 장애인극단 [애인]과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무대에 올린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미 나타났다. 그것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일이었다. 극단 [애인]을 위해 이연주가 쓴 〈너는 나다〉(2014), 극단 배우들이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도록 그가 구성, 연출한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2012-2015)는 이연주가 지향하는 예술의 방향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술,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들이는 발화수단으로써 예술의 개념이다.

버바담 연극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一般)’에 대립되어 ‘이반’으로 규정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복권시킨 〈이반검열〉(2016, 2017)은 이연주 연극의 ‘맥락 특정적, 관객 특정적 성격’을 고스란히 나타내준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사람들, 그러나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건강함을 지니려면 침묵해서는 안 될 것들을 무대 위로 호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왜, 어떤 양상으로 어떤 존재들을 부정하는지 묻는다. 배우들의 발화는 직접 관객을 향했으며,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관객들에게 섬세한 감성과 윤리적 사유를 요구했다.

성실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섬세하고 서사적인 연극성을 추구하는 이연주는 질문을 중심에 놓는 대신, 그 외의 다른 연극적 수사들은 가능한 덜어낸다. 서사가 진지한 반면 무대는 소란스럽지 않다. 연극예술가로서 이연주는 연극이 사회에 저야 할 윤리적 책임감을 누구보다 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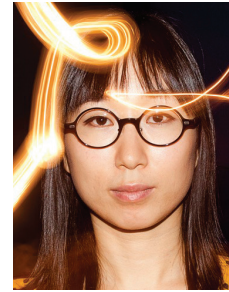
이연주와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의 작품들은 현재 한국의 젊은 연극이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나가고 있는지, 그 변화를 실감하게 해주는 작업들이다. 우리가 이연주의 연극에서 기대하는 것은 멋진 스펙터클이나 화려한 미장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관객과 공유하려는 시도를 펼친 이 예술가/그룹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 커뮤니티를 통합해 가려는 노력을, 과정으로서의 예술 개념과 연결시킨 이들의 열린 감성이다.

심사위원 노이정 이경미 김재엽

2017 제 8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미술부문 권하윤

심사위원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혜진 (미술평론가)
안소현 (독립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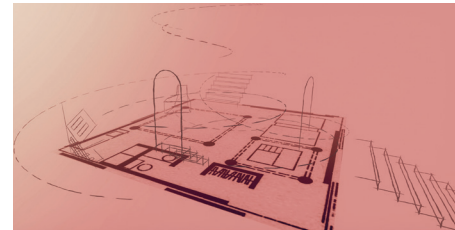


권하윤

2011 프랑스 현대미술 스튜디오 르 프레누아 (Le Fresnoy), 석사 졸업, 프랑스
2008 시각 예술 국가학위 석사 졸업, 보자르 낭트, 프랑스
2006 조형 예술 국가학위 학사 졸업, 보자르 낭트, 프랑스

2017 *새 여인*, 팔레드 도쿄, 파리, 프랑스
2016 *489년*, 렉투르 포토그래피 아트 센터, 렉투르, 프랑스
2015 *북한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권하윤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가능성을 연구하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3D 등 다양한 영상작업을 선보인다. 실제와 가상이 뒤섞이며 재구성되는 그의 작업은 시간과 기억, 정체성과 경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가상현실(V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는 새롭고 낯선 시공간 경험을 통해 현실의 복잡성 속에서 객관적 진실과 허구적 해석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



The Bird Lady 2017, Installation, 7~15min



489 Years 2016, HD, Color, 11min 18sec

미술부문 심사평

올해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은 두산아트센터 개관 10년을 맞아 부분적으로 개편되었다. 3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총 9명의 작가들 중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수상자 수가 3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의 부상인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후보작가들을 한 명씩 검토하면서, 작가들의 창의적인 작업 세계와 성장가능성을 지원해 온 두산연강예술상의 취지와 방향성에 따라,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권하운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권하운의 작품은 <Model Village>(2014), <489 years>(2016), <Lack of Evidence>(2011), 그리고 가장 최신작인 <The Bird Lady>(2017) 등 작품 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반면 몇 편 안 되는 작품들이지만, 작품들 모두 각각 '영토와 경계'라는 주제 속에서 사소하지만 독특한 에피소드를 찾아 적절하고 정교한 구현방식을 통해서 시각화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권하운이 다루는 지정학적 이슈, 이주문제, 정체성 등 사회적 현실은 동화와 다큐멘터리 사이의 의도적으로 모호한 스토리텔링과 3D 애니메이션, VR등의 첨단기기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서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전달되는데, 이것은 관객에게 재현과 실재, 현실과 가상의 첨예한 관심을 촉구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권하운의 작품들에서 작품/전시와 관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시장에서 VR 헤드셋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참 고민스러운 문제다. VR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것이 예술과 맺는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권하운 작업을 만나기 전까지는 VR 시스템은 놀이공원이나 체험관과 같이 일차원적 관객참여를 유도할 때나 요긴한 그런 도구였다. 그의 작업에서 이 VR의 역할은 작품/전시에서 관객의 위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마치 60년대 비디오 카메라의 등장이 작품/전시와 관객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듯이, 권하운의 VR 또한 작품/전시 안에서 관객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미술에서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 연출된 무대의 관객, 거리의 보행자에서 작품의 운명에 관계하는 능동적 관객으로 변화해왔으며, 이 연

장선에서 권하운 작업의 관객은 자유롭게 작품의 변형과 완성 혹은 미완성에 관여하게 된다.

권하운을 수상자로 결정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VR로 거둔 성취 때문은 아니다. 도리어 그가 VR 사용 이전에 추구해온 시공간과 인식의 경계라는 주제에서의 독창적 조형성과 섬세한 내러티브 감각 때문이며, 이러한 작가의 탐구가 결국 VR 매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개연성에 대해 수긍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재하나 허상에 불과한 유행으로서의 DMZ마을을 모형과 사운드로 배치한 <Model Village>, 사적 기억과 공적 역사의 충돌을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영상의 조합으로 구현한 <Lack of Evidence> 등은 <489 years>의 경과적 실험을 거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로서의 VR의 도래를 촉발하고 있었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VR 매체를 배제하고도 독자적 영상 작업을 구축하리라는 신뢰, 다른 한편, 그렇기에 이 작가가 향후 VR로 펼쳐갈지 모를 미지의 공간 및 시점의 내러티브 탐색에 대한 기대가 수상자 선정의 이유다.

선정과정에서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새로운 감각과 특수한 경험을 어느 작가가 마다하겠는가 만은 예민한 작가라면 한 번쯤은 그것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울 때 작품의 의미가 너무 쉽게 환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특히 전자가 뉴미디어에 의한 신기함을 수반하고, 후자가 전쟁이나 분단처럼 피상적인 선입견을 쉽게 불러들이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권하운의 작품들은 그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답함을 보여주었다. 분단의 경험을 VR로 풀어낸 것,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서사를 재구성하기보다 생경한 감각들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작품이 단조로운 의미로 환원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동안 주로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권하운 작가의 작품이 그 어느 나라보다 뉴미디어의 수용 속도가 빠르고, 또 그만큼 이데올로기의 양상도 극단적인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못 궁금해진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2010년-2016년)

공연부문

- | | | |
|------|---|--|
| 2016 |  | 구지혜 작가/연출
〈commercial, definitely: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디스 디스토피아〉, 〈모래의 여자〉 |
| 2015 |  | 이지람 국악창작자
〈이방인의 노래〉, 〈추물/살인〉,
〈역척가〉, 〈사천가〉 |
| 2014 |  | 이경성 연출
〈비포 애프터〉, 〈서울연습 - 모델, 하우스〉,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 - 극장편〉,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 |
| 2013 |  | 성기웅 작가/연출
〈20세기 건담기建談記〉, 〈신모험왕〉,
〈가모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과학하는 마음 3부작 - 발칸동물원편〉 |
| 2012 |  | 김은성 작가
〈썩사인의 전사들〉, 〈빨〉, 〈목란언니〉,
〈연변엄마〉, 〈시동라사〉 |
| 2011 |  | 윤한술 연출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지니스〉,
〈1984〉, 〈두뇌 수술〉, 〈나는 기쁘다〉,
〈의붓지역 - 억압된 것의 귀환〉,
〈빈커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 |
| 2010 |  | 김낙형 작가/연출
〈맥베드〉, 〈지상의 모든 밤들〉,
〈별이 쏟아지다〉, 〈나의 교실〉 |

미술부문

- | | | | |
|------|---|---|---|
| 2016 |  |  |  |
| | 김희천 | 박광수 | 이호인 |
| 2015 |  |  |  |
| | 강정석 | 오민 | 유목연 |
| 2014 |  |  |  |
| | 강동주 | 안정주 | 이윤성 |
| 2013 |  |  |  |
| | 김민애 | 김영나 | 차재민 |
| 2012 |  |  |  |
| | 김상돈 | 김지은 | 장지아 |
| 2011 |  |  |  |
| | 박주연 | 이소정 | 이재이 |
| 2010 |  |  |  |
| | 구동희 | 김시연 | 박미나 |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YONKANG
Hall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어진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pace
111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DOOSAN
Gallery

두산갤러리

두산갤러리는 비영리 갤러리로서 2007년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작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큐레이터 워크샵과 미술강좌 등을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갤러리 뉴욕은 한국 최초로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고 2009년 뉴욕 첼시에 설립된 비영리 갤러리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는 국제적 수준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미술 작가들에게 뉴욕 첼시에 있는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레지던시 입주 작가에게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 및 미술애호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11 West 25th Street 7F, New York, NY 10001

입주작가 2017 권용주 오민 윤희로 장파 최수양
2016 강동주 박재영 안정주 유현경 이윤성 이은실
2015 김민애 김영나 백정기 이혜인 정지현 차재민
2014 김상돈 김지은 장보윤 장지아 전소정 이완
2013 박주연 문성식 유승호 이소정 이재이 함진
2012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박세진 이지현 정희승
2011 김기라 김인배 민성식 박윤영 이동욱 이주요
2010 권오상 김인숙 백승우 성낙희 홍경택
2009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아트센터 2017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창작자 지원

창작자유성 프로그램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쇼케이스, 독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지원합니다.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6개월 동안 뉴욕 첼시 지역에 위치한 독립된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뮤지컬 16.12.16~3.5
비보이 픽션-코드네임 815 댄스 4.28~4.30
하늘로 가지 못한 선녀씨 이야기 연극 5.6~5.21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 연극 6.20~8.20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뮤지컬 10.27~18.1.7



Doosan Art LAB
유리거울 릴레이 강연 퍼포먼스 1.5~1.7
 기획/연출 최윤석
제로섬 게임 연극 1.12~1.14
 작/연출 박용 출연 이리 조정문
딤 프레젠티 미디어 퍼포먼스 1.20~1.21
 컨셉/연출 김지선
삼각구도 다원 2.10~2.11
 연출/출연 오재우 이희문 장현준
대안 가정 생태 보고서 연극 2.16~2.18
 작 박서혜 연출 이연주
카트라인 다원 2.23~2.25
 연출 장병욱 구성 김재동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 사물들: 조각적 시도 1.11~2.18
 배윤환 개인전 3.1~3.29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 또 하나의 기둥 4.12~5.27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특별전 - 모빌 6.7~7.5
두산아트랩 2017 7.19~8.19
 기술기 개인전 8.30~9.27
 박광수 개인전 10.18~11.18
 김희천 개인전 11.29~12.23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특별전 - 웨임은유 1.26~2.23
 오민 개인전 3.2~4.6
 최수양 개인전 5.18~6.24
 권용주 개인전 9.7~10.5
 장파 개인전 10.12~11.9
 윤향로 개인전 11.16~12.28



교육 프로그램

밤의 낭독회 1.9~1.23
두산인문극장 2017: 갈등 3.20~6.5
두산청소년아트스쿨 7.15~8.5
두산 컨템포러리 토크 9.20~9.22
두산어린아트스쿨 10.13~11.14
두산아트스쿨 11.1~12.6
백스테이지 투어 연중

두산인문극장 2017: 갈등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무용 3.25~3.26
 안무/연출 안은미
목란언니 연극 3.28~4.22
 작 김은성 연출 전인철
죽음과 소녀 연극 5.2~5.14
 연출 박지혜 출연 손상규 양중욱 양조아
생각은 자유 연극 5.23~6.17
 작/연출 김재엽

심청

연극 3.3~3.19
 작 이강백 연출 이수인
DAC 희곡 리서치 낭독 7.6~7.14
비너스 인 퍼 연극 7.25~8.27
 작 데이비드 아이브스 연출 김민정
20세기 건담기 建談記 연극 9.5~9.30
 작/연출 성기웅
XXL레오타드 만나수이 손거울 연극 10.13~10.28
 작 박찬규 연출 전인철
워킹 홀리데이 Walking Holiday 연극 11.7~11.26
 연출 이경성
망각의 방법 연극 12.2~12.25
 극단 코끼리만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4~2015 Thermal 부문, GWI 발표기준)

